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장 (명절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산세 실시
- 예약 : www.hpdyne.com 0801-320-7700



지난 10일부터 여수 등 전남 일원에서 벌어진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16일 폐막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전남 선수단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며 타 시·도 선수단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히어로 -사이클 4관왕 전남 미용고 나아름

“국가대표 향해 달려야죠”

“지난해 보다 금메달을 한개 더 추가해 4관왕에 올라 후배들에게 훌륭한 성과를 남겨줄 수 있어 기쁩니다.”

16일 나주시 일원에서 열린 사이클 여고부 개인도로에서 4번째 금메달 질주를 펼친 나아름(전남미용고)의 대회 4관왕 소감이다.

지난 12일 2km개인추발에서 금빛질주를 펼치며 금메달 사냥을 시작한 나아름은 같은날 팀 동료 홍현지·김진희와 함께 단체스프린터에서 두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13일 20km포인트트레이스에서 세번째 금메달을 따냈고, 대회 폐막일인 16일 개인도로에서 4관왕의 금자탑을 쌓았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2km개인추발·단체추발과 도로독주에서 3관왕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아온 나아름은 졸업후 나주시청으로 진로를 정했다.

올해 뛰어난 성적을 인정받아 재 호주체육회에서 주는 '제4회 코알라 장학금'을 받



기도 한 나아름은 파워와 지구력만 보완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대주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화제 박스

‘전국 최강’ KT 꺾고 대회 2연패

목포시청 여자 하키팀

전국체육대회에 강한팀!

16일 목포 국제하키팀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여자일반부 결승에서 목포시청이 인제대를 꺾고 대회 2연패를 확정짓자 관계자들 사이에서 “역시 전국체육대회 우승팀은 목포시청이다”는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졌다.

이같은 이유는 여자 일반부 하키의 최강자는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KT가 강자이기 때문이다. KT는 국가대표 7명이 포진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팀. 이 강팀을 목포시청은 8강전에서 2-1로 꺾고 4강전에서 올라역시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충남아산시청을 4-2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목포시청의 전국대회 우승은 한 차례뿐. KT의 독무대였기 때문에 목포시청은 전국체전에 유독 강한팀으로 취급받는다.

특히 목포시청의 우승은 타 실업팀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빛난다. 타 팀에 비해 열악한 월급과 목포국제하키팀이 완공되기 전까지 경기장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훈련을 한 것을 생각하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우승이다.

하키 관계자들은 목포시청 선수들이 타 팀에 비해 유독 애환심이 강하고 박정숙, 김은실(현 국가대표)을 주축으로 강팀들을 이겨보자는 정신력과 2년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김도순 감독의 지도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 전국체전에 강한 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뒷심 발휘 3위...광주 아쉬운 14위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일부터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7일동안 펼쳐진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16일 폐막됐다.

전남은 광주·전남 분리이후 31년 만에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5만4천697점을 획득해 종합3위를 기록했고, 광주는 당초 목표에서 한 단계 못미친 종합14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금메달 45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73개와 종합점수 3만1천740점을 획득해 20년 만에 최고의 점수를 따내는 선전을 펼쳤으나 순위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금메달 50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84개를 따내며 5만4천697점으로 종합3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은 경기도가 8만3천421점을 얻어 7연패의 금자탑을 달성했고, 서울은 6만5천107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은 김덕현(광주시청)이 육상 멀리뛰기에서 21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육상 7개, 수영 11개 등 모두 18개가 작성돼 질적으로도 한층 격상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는 대회 마지막날인 16일 황준호(광주체고)가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영 남고 자유형 200m에서 금빛 영광을 펼쳤고, 이지선·박경희·김달은·김고은(광주신발)이 수영 여자일반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윤준식(광주체고)과 정영호(국군체육부대)는 레슬링 남고와 남자일반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보냈으나 종합 13위를 차지한 대전광역시에게 뒤진 396점의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16일 끝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전남선수단 대표와 종합우승한 경기, 2위에 오른 서울선수단 대표가 시상대에서 기발과 트로피를 흔들며 보이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체전 어제 폐막...경기 대회 7연패

수영 박태환 MVP...내년 대전서 개최

대회 마지막날까지 종합3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전남에는 이날 상무가 남자일반 농구와 럭비에서 소중히 금메달을 보냈다. 또 상무는 배구 남자일반에서도 부 산체육회를 3-0으로 꺾어웃사시키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에 힘을 실었다.

목포시청과 화순실고도 각각 하키 여자 일반과 남고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단체 종목의 선전도 전남에 힘을 보탤지만 신혁필·안상필(함평골프고), 이대환(목포고)이 선전한 골프 남자일반에서는

2, 등1개를 추가해 경북의 추격을 따돌리고 종합 3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아름·이수진·홍현지·최은진·김진희(이상 전남미용고)는 사이클 여고부에서 금메달을 보냈고, 강은미·나희경·노효성·유진아·정인경(나주시청)도 사이클 여자 일반부 개인도로에서 역시 가장 먼저 골인 점을 통과해 전남의 피말리는 종합 3위 경합에 마침표를 찍었다.

/여수=최재호·박양규기자 lion@kwangju.co.kr

전국체전 종합순위 (최종)

순위	시·도	금	은	동
1	경기	149	138	147
2	서울	103	95	101
3	전남	50	55	84
4	경북	76	72	89
5	충남	55	60	88
6	경남	55	43	84
7	강원	68	57	79
8	부산	61	67	77
9	대구	38	53	58
10	전북	46	46	73
11	인천	37	37	86
12	충북	40	47	69
13	대전	46	50	70
14	광주	45	48	73
15	울산	33	35	45
16	제주	23	25	28

“런던올림픽 향해 최선 다해야죠”

■ MVP 박태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16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수영의 ‘국민영웅’ 박태환(19·단국대)은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광주·전남지역 팬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태환의 대회 최우수선수 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2년연속의 영예이며 지난 2005년 제86회 울산 대회까지 포함해 통산 세번째 영광이다. MVP 3차

레 수상은 역도의 김태현(76회, 79회, 80회)에 이어 박태환이 두 번째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수영 자유형 100m에서 48초94로 우승하며 ‘마의 49초 벽’을 넘어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5관왕을 거머쥐며 MVP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16일 오전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혼계영 400m에서 박태환은 1천100여 관중의 환호속에 3분46초40으로 대회신기록을 달성, 다섯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우수선수상을 확정지었다.

박태환은 “꾸준한 훈련으로 런던올림픽에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태권도’ 명성 재확인

금 4·은 2·동 9개...종합 1위

전남태권도가 전국에 ‘태권 전남’의 명성을 알렸다.

이같은 틀 바꾸니에서 전남은 지난 12일 나주교(전남체육고)가 남고부 페데급, 김주영(조선대)이 남대 밴텀급, 김용민(한국가공사)이 남일반 밴텀급에서 각각 금메달

행진을 벌이며 일제까지 종합1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이후 15일 정영한(한국가스공사)이 남자일반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확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오른쪽)과 박경완 전남태권도협회 전무.

특히 태권도는 인구가 워낙 많아 각 시·도가 승부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터를 방불케 한다.

2개의 은메달과 9개의 동메달도 큰 힘을 보태며 태권 전남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조영기(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은 “고향에서 열린 대회 행진을 벌이며 일제까지 종합1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이후 15일 정영한(한국가스공사)이 남자일반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확

정지으며 종합1위를 차지했다. 2개의 은메달과 9개의 동메달도 큰 힘을 보태며 태권 전남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조영기(대한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은 “고향에서 열린 대회 행진을 벌이며 일제까지 종합1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이후 15일 정영한(한국가스공사)이 남자일반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확

재일동포 선수단, 함평 삼애원에 후원금 500만원

제89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일동포선수단이 16일 아동복지시설인 함평 삼애원에 후원금을 기부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체전에 2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재일동포선수단은 이날 속수인 구례 지리산 한화리조트에서 선수단과 일분대체육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애원 윤환식 원장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재일동포선수단과 임원 등이 성금을 모은 것으로 재일동포 선수단은 2005년부터 매년 전국체전 개최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